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 X _

해외구호분과 세미나

- | 일시 |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살롬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해외구호분과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 차

기조강연 	9
“한국교회와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_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발 표 	23
“긴급구호와 후속재건사업의 사례”	
_ 라모스 에디슨(굿피플 필리핀 Project Manager)	
_ 김 선 장 상임이사(굿피플)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해외구호분과 -

1. 일 시 : 2010. 10. 15(금) 오전 10:00 ~ 오후 12:2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살롬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10:30	개회예배	인도_ 안익선 실장(굿피플) 기도_ 안홍철 목사(예정통합 사회봉사부) 설교_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축도_ 설교자
좌장_ 박창빈 목사(월드비전 부회장)		
10:30~11:10	기조강연	“한국교회와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_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11:10~11:50	발표	“긴급구호와 후속재건사업의 사례” _ 라모스 에디슨(굿피플 필리핀 Project Manager) _ 김선장 상임이사(굿피플)
11:50~12:2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한국교회와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재난이란 무엇일까?





World Vision

한국교회와 재난지역의 인도적 지원

2010. 10. 15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World Vision

Disaster의 정의

“ 재난이란 한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 인간, 자원, 환경 등에 피해를 가져와 **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발생속도에 따라 긴급재난(sudden)과 만성재난(slow)으로 구분되며 재난의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재로 구분이 된다. ”

UNDMTP(UN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Program)



World Vision

Disaster의 기독교적 관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창조질서의 파괴,

그에 따른 불완전한 현상의 표출



World Vision

인도적 지원(구호)이란?



World Vision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

■ 인도적 지원의 정의

1. 재해 발생 시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2. 그 생명이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 인도적 지원의 단계

- 1단계 - 재난 예방과 대비 (Prevention & Preparedness)
- 2단계 - 긴급구호 (Emergency Response)
- 3단계 - 복구 및 재건 (Recovery & Reconstruction)



World Vision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중략...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창세기 1장 27절~31절 -



World Vision

‘창조 모습으로의 회복’



World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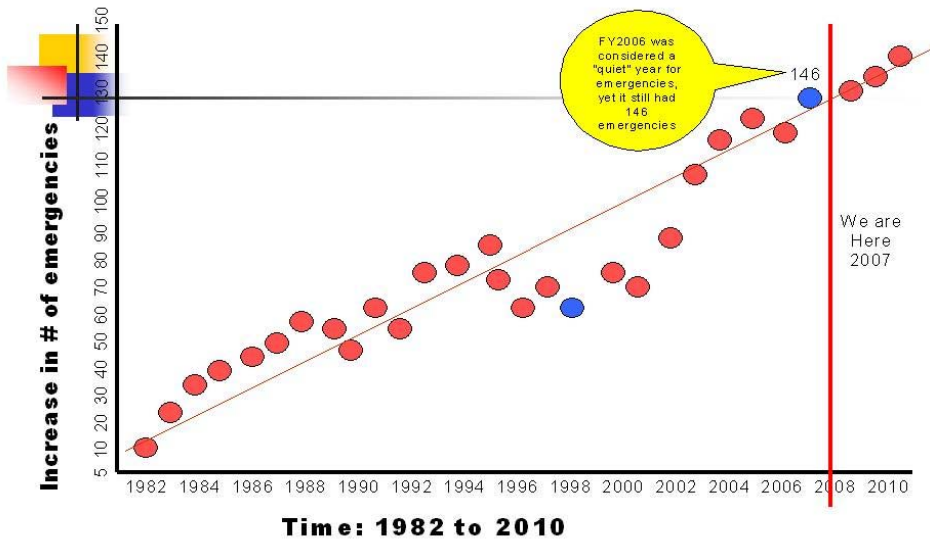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적 상황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식량 위기 등
- Accountability (수혜자/후원자 책무성)
- 인도적 지원 단체의 조직화
- Technology의 진화
- 도시화/인구이동의 세계화
- 9/11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조의 정치화 현상
-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테러의 대상이 됨
- 군대 및 영리기업 등 원조 주체의 다양화
- Impact of China
- 국제적 분쟁보다는 국내적인 분쟁 & 테러리즘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



World Vision

Increase in # of emergencies in past 30 years



World Vision

인도적 지원(구호)의 기준과 윤리

- **중립성(Neutrality):** 정치적, 종교적 입장 등에 개입되거나 편을 들지 않는다.
- **공평성(Impartiality):** 대상자에 차별 없이 지원한다.
- **독립성(Independence):** 정치적 목적 및 특정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다.



인도적 지원(구호) 사업의 각 단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장 23절 -



World Vision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독교적 모델

“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

- 마가복음 1장 41절-



World Vision

공휼 = Compassion

Com = 함께

Passion = 고통을 받는다



전인적인 접근



삶의 변화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찰

- 수혜자 중심의 사업
 - 후원자의 욕구가 아닌 **수혜자들의 필요(needs)**가 우선

- 수혜자/수혜국 **존재가치** 인정
 -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임을 인정
 - 현지의 문화, 제도, 절차를 인정

- 인도적 지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 준비되지 않은 열심에 의한 피해 가중



World Vision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찰

- **기독교 본질**로의 회귀
 - 이미지 개선/홍보를 위한 지원 아닌 순수한 지원

- 조건없는 **아가페 사랑**

- 지나친 경쟁이 아닌 **협력**
 - 교회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
 - 전문기관(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World Vision

한국교회를 위한 또 하나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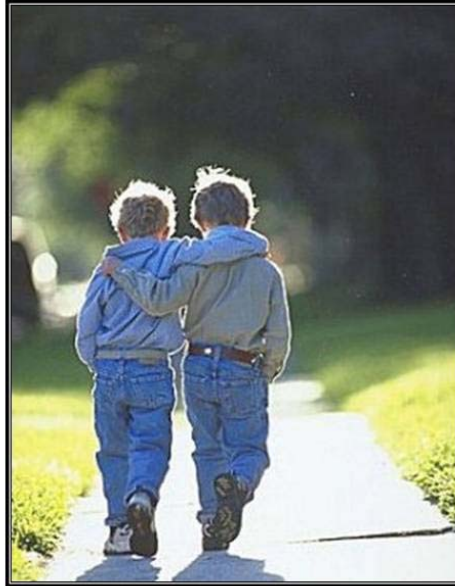
- 현 국제사회의 주류가치에 균형을 제공
 - 현재 결과, 제도, 합리성 등이 주된 가치
 - **사람, 가치(value), 관계** 등의 가치 제공을 통한 **균형 회복**

- **재난회복과 신앙**의 관계

- **윤리적 고찰** 운동(Ethical Review)



World Vision



동행...




World Vision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 헬렌 켈러 -

<http://blog.naver.com/taekidol1988>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Bob Pierce)와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100여 나라에서 인종과 종교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여 가난과 기근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독교 국제구호개발 기구입니다.



< 월드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선교사 >





한국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Core Value

축복의 통로

풍성한 삶

전문성

창조성

세계를 품는 리더십

한국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개요

- 1998년 국제본부 내 긴급구호전담부서 창설
 - ▶ 급격한 양적 성장에 따른 사업의 질향상을 위해 2000년 HEA로 명칭 변경
- 2001년 월드비전 한국 긴급구호팀 신설
 - ▶ Task Force Team 형식
 - ▶ 아프카니스탄 KOICA 지원사업 (긴급보충식량지원사업 실시, 한비야 팀장 파견)
- 2004년 긴급구호팀 상설팀으로 재탄생
- 2007년 국제구호팀으로 명칭 변경



World Vision

월드비전 재난 카테고리 선포기준

	카테고리 III	카테고리 II	카테고리 I
정의	전 세계가 대처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재난	재난 발생국이 속한 대륙이 함께 대처해야 할 재난	재난 발생국 책임 하에 대응이 가능한 재난
1차 기준 지표	-1백만 명 이상(총 인구의 50%이상) 피해자 발생 -하루사망자수:1만 명 당 한 명 이상	-10만 명에서 1백만 명의 피해자 발생 (총 인구의 25~50%) -하루 사망자수 급격히 증가	-10만 명 이하의 피해자 발생 -ADP 및 월드비전 사업의 직접적 피해 -생계 및 개발에의 큰 위협
2차 기준 지표	-기존 재난대처법 적용 불가, 기본생계 파괴 -재난 발생국 정부, 사회, 경제 파괴 심각 -여러 국가가 피해 입음 -HIV/AIDS 발병률 20%이상 등	-기존 재난대처법 적용 어려움, 생계위험 -국가내부적인 정부, 사회, 경제 손실이 큼 -인간개발지수 0.70이하 -HIV/AIDS 발병률 10%이상	
구호의 예	쓰나미 지진해일, 미얀마 사이클론, 아이티	동티모르 사태, 이란 대지진	국내 수해 긴급구호



World Vision

카테고리 선포 후 대응단계 기준

	월드비전 대응
레벨 0	대응하지 않음
레벨 P	일부 선별적 파트너간의 대응
레벨 1	기본적 수준의 구호진행, 해당국 NO 사무소 중심
레벨 2	중간 수준의 구호 진행, 해당 대륙 사무소 중심
레벨 3	최대 구호 노력 투입 및 진행, 전세계 사무소 중심



World Vision

월드비전 안전 단계

■ 국제본부 안전담당부서(Office of Corporate Security) :

위험도 등급(Risk ratings) 판정(매 2주):

- **Green** (위험도 낮음)
- **Yellow** (위험도 중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소 존재 ▶ 짐바브웨, 부룬디 등
- **Red** (위험도 높음): 반정부군,테러리스트 등 활동지역, 긴급구호 등 필수적인 진입만 가능 ▶ 다르푸, 팔레스타인(가자지구) 등
- **Black** (위험도 심각):안전에 직접적 위협 상존, 실질적 긴급구호활동 불가, 사업 중단 및 직원 철수 ▶ 소말리아, 이라크 등

긴급구호와 후속재건사업의 사례

굿피플 필리핀 Project Manager 라모스 에디슨

상임이사(굿피플) 김 선 장

GOOD PEOPLE INTERNATIONAL



Introduction

THE AETA (PRONOUNCED AS “EYE-TA,”), AGTA OR AYTA ARE AN INDIGENOUS PEOPLE WHO LIVE IN SCATTERED, ISOLATED MOUNTAINOUS PARTS OF LUZON, PHILIPPINES. THEY ARE CONSIDERED TO BE NEGRITOS, WHO ARE DARK TO VERY DARK BROWN-SKINNED AND TEND TO HAVE FEATURES SUCH AS A SMALL STATURE, SMALL FRAME, CURLY TO KINKY HAIR WITH A HIGHER FREQUENCY OF NATURALLY LIGHTER HAIR COLOR (BLONDISM) RELATIVE TO THE GENERAL POPULATION, SMALL NOSE, AND DARK BROWN EYES. THEY ARE THOUGHT TO BE AMONG THE EARLIEST INHABITANTS OF THE PHILIPPINES, PRECEDING THE AUSTRONESIAN MIGRATIONS.

THE AETA WERE INCLUDED IN THE GROUP OF PEOPLE TERMED “NEGRITO” DURING SPANISH COLONIAL RULE AS NEGRITOS. VARIOUS AETA GROUPS IN NORTHERN LUZON ARE KNOWN AS “PUGUT” OR “PUGOT,” A NAME DESIGNATED

BY THEIR ILOCANO SPEAKING NEIGHBORS, AND WHICH IS THE COLLOQUIAL TERM FOR THOSE WITH DARKER COMPLEXIONS. IN ILOCANO, THE WORD ALSO MEANS "GOBLIN" OR "FOREST SPIRIT."

History

THE HISTORY OF THE AETA CONTINUES TO CONFOUND ANTHROPOLOGISTS AND ARCHAEOLOGISTS. ONE THEORY SUGGESTS THAT THE AETA ARE THE DESCENDANTS OF THE ORIGINAL INHABITANTS OF THE PHILIPPINES, WHO, CONTRARY TO THEIR SEA-FARING AUSTRONESIAN NEIGHBORS, ARRIVED THROUGH LAND BRIDGES THAT LINKED THE COUNTRY WITH THE ASIAN MAINLAND ABOUT 30,000 YEARS AGO. UNLIKE MANY OF THEIR AUSTRONESIAN COUNTERPARTS, THE AETAS HAVE SHOWN RESISTANCE TO CHANGE. THE ATTEMPTS OF SSPANIARDS TO SETTLE THEM IN REDUCIONESS OR RESERVATIONS ALL THROUGHOUT SPANISH RULE FAILED.

MINING, DEFORESTATION, ILLEGAL LOGGING, AND SLASH-AND-BURN FARMING HAS CAUSED THE INDIGENOUS POPULATION IN ALL PARTS OF THE PHILIPPINES TO STEADILY DECREASE TO THE POINT WHERE THEY NUMBER IN THE THOUSANDS TODAY. THE PHILIPPINES AFFORDS THEM NO PROTECTION. IN ADDITION, THE AETA HAVE BECOME EXTREMELY NOMADIC DUE TO SOCIAL AND ECONOMIC STRAIN ON THEIR CULTURE AND WAY OF LIFE THAT HAD PREVIOUSLY REMAINED UNCHANGED FOR THOUSANDS OF YEARS. THE AETA HAVE NO SENSE OF MONEY OR LAND OWNERSHIP AND SOMETIMES CAN BE SEEN CAMPING OUT IN CITY PARKS OR PANHANDLING.

WHILE RESISTING CHANGE FROM THE OTHER SOCIETY FOR HUNDREDS OF YEARS, THE AETAS HAVE ADJUSTED TO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PRESSURES WITH REMARKABLE RESILIENCE; THEY HAVE CREATED SYSTEMS AND STRUCTURES WITHIN THEIR CULTURE TO CUSHION THE SUDDEN IMPACT OF CHANGE.

Demographics

THE LIFE EXPECTANCY AT BIRTH OF THE AETA IS JUST 16.5 YEARS, WITH ONLY A THIRD OF CHILDREN SURVIVING TO ADULTHOOD AT 15 YEARS - AT WHICH POINT LIFE EXPECTANCY IS STILL ONLY 27.3 YEARS. YOUNG WOMEN REACH FULL ADULT HEIGHT (AVERAGE 140 CM) AT AGE 12 OR 13.



Culture

1. LANGUAGE

ALL AETA COMMUNITIES HAVE ADOPTED THE LANGUAGE OF THEIR AUSTRONESIAN NEIGHBORS , WHICH HAVE SOMETIMES DIVERGED OVER TIME TO BECOME DIFFERENT LANGUAGES. THESE INCLUDE, IN ORDER OF NUMBER OF SPEAKERS, MAG-INDI, MAG-ANTSI, ABELLEN, AMBALA, AND MARIVELENO.

2. RELIGION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DOMINANT CHARACTER OF THE AETA RELIGION. THOSE WHO BELIEVE THEY ARE MONOTHEISTIC, ARGUE THAT VARIOUS AETA TRIBES BELIEVE IN A SUPREME BEING WHO RULES OVER LESSER SPIRITS OR DEITIES, WITH THE AETA OF MT. PINATUBO WORSHIPPING "APO MALYARI."



THE AETAS ARE ALSO ANIMIST. FOR EXAMPLE, THE PINATUBO AETA BELIEVE IN ENVIRONMENTAL SPIRITS SUCH AS ANITO AND KAMANA. THEY BELIEVE THAT

GOOD AND EVIL SPIRITS INHABIT THE ENVIRONMENT, SUCH AS THE SPIRITS OF THE RIVER, SEA, SKY, MOUNTAIN, HILL, VALLEY, AND OTHER PLACES.

NO SPECIAL OCCASION IS NEEDED FOR THE AETA TO PRAY, ALTHOUGH THERE IS A CLEAR LINK BETWEEN PRAYER AND ECONOMIC ACTIVITIES. THE AETA DANCE BEFORE AND AFTER A PIG HUNT. THE NIGHT BEFORE AETA WOMEN GATHER SHELFISH, THEY PERFORM A DANCE WHICH IS PARTLY AN APOLOGY TO THE FISH AND PARTLY A CHARM TO ENSURE THE CATCH. SIMILARLY, THE MEN HOLD A BEE DANCE BEFORE AND AFTER THE EXPEDITIONS FOR HONEY.

IN THE MID-60S MISSIONARIES OF THE AMERICAN-BASED EVANGELICAL, PROTESTANT MISSION GROUP NEW TRIBE MISSION, IN THEIR EFFORT TO REACH EVERY PHILIPPINE TRIBAL GROUP WITH THE CHRISTIAN GOSPEL REACHED OUT TO THE AGTAS/AETAS. THE MISSION AGENCY PROVIDED EDUCATION INCLUDING PASTORAL TRAINING FOR NATIVES TO REACH MEMBERS OF THEIR OWN TRIBE. TODAY, A LARGE PERCENTAGE OF AGTAS/AETAS OF ZAMBALES, PAMPANGA AND TARLAC ARE EVANGELICALS (BORN AGAIN CHRISTIANS, PROTESTANTS, BAPTISTS, ETC).

3. CLOTHING

THEIR TRADITIONAL CLOTHING IS VERY SIMPLE. THE YOUNG WOMEN WEAR WRAP AROUND SKIRTS. ELDER WOMEN WEAR BARK CLOTH, WHILE ELDER MEN WEAR LOIN CLOTHS. THE OLD WOMEN OF THE AGTA WEAR A BARK CLOTH STRIP WHICH PASSES BETWEEN THE LEGS, AND IS ATTACHED TO A STRING AROUND THE WAIST. TODAY MOST AETA WHO HAVE BEEN IN CONTACT WITH LOWLANDERS HAVE ADOPTED THE T-SHIRTS, PANTS AND RUBBER SANDALS COMMONLY USED BY THE LATTER.

4. PRACTICES

THE AETAS ARE SKILLFUL IN WEAVING AND PLAITING. WOMEN EXCLUSIVELY WEAVE WINNOWS AND MATS. ONLY MEN MAKE ARMLETS. THEY ALSO PRODUCE

RAINCOATS MADE OF PALM LEAVES WHOSE BASES SURROUND THE NECK OF THE WEARER, AND WHOSE TOPMOST PART SPREADS LIKE A FAN ALL AROUND THE BODY.

5. MEDICINE

AETA WOMEN ARE KNOWN AROUND THE COUNTRY AS PURVEYORS OF HERBAL MEDICINES.

6. ART

A TRADITIONAL FORM OF VISUAL ART IS BODY SCARIFICATION. THE AETAS INTENTIONALLY WOUND THE SKIN ON THEIR BACK, ARMS, BREAST, LEGS, HANDS, CALVES AND ABDOMEN, AND THEN THEY IRRITATE THE WOUNDS WITH FIRE, LIME AND OTHER MEANS TO FORM SCARS.

OTHER "DECORATIVE DISFIGUREMENTS" INCLUDE THE CHIPPING OF THE TEETH. WITH THE USE OF A FILE, THE DUMAGAT MODIFY THEIR TEETH DURING LATE PUBERTY. THE TEETH ARE DYED BLACK A FEW YEARS AFTERWARDS.

THE AETAS GENERALLY USE ORNAMENTS TYPICAL OF PEOPLE LIVING IN SUBSISTENCE ECONOMIES. FLOWERS AND LEAVES ARE USED AS EARPLUGS FOR CERTAIN OCCASIONS. GIRDLES, NECKLACES, AND NECKBANDS OF BRAIDED RATTAN INCORPORATED WITH WILD PIG BRISTLES ARE FREQUENTLY WORN.

The Project' s Mission and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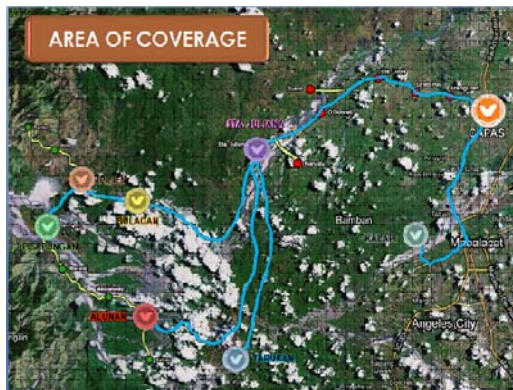
IMPROVE THE WELL BEING AND QUALITY OF LIFE OF THE MARGINALIZED AND THE UNDERPRIVELEGED.

FACILITATE DEVELOPMENT IN THE COUNTRYSIDE AND CITIES IN PARTNERSHIP WITH THE LOCAL AND NATIONAL AGENCIES, NGO/S AND PEOPLES ORGANIZATIONS HARNESSING THEIR POTENTIALS TOWARDS THEIR OWN DEVELOPMENT

PLAN WITH THE COMMUNITIES TOWARDS OWNERSHIP OF THEIR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THEIR ENDEAVOURS.

IMPLEMENT PROJECTS ALONGSIDE IP COMMUNITIES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ACCEPT THEIR SUCCESS AS GOAL OWNERS.

IMPLEMENT PROGRAMS AND PROJECTS IN THE ATTAINMENT OF ITS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EALTH, EDUCATIONAL, ECONOMIC DEVELOPMENT, VALUE FORMATION AND LIVELIHOOD PROJECTS.



Village Profiles



[Alunan Village]

ALUNAN IS LOCATED AT THE SOUTHEASTERN SIDE OF CROW VALLEY RANGE (PLEASE REFER TO THE MAP) , FROM STA. JULIANA PROPER IT WILL TAKE

APPROXIMATELY 1 TO 1,5 HOURS BY 4 X 4 JEEP (AROUND 3-5 KM TREK). THE TRIBE IS HEADED BY TRIBAL CHIEF ROGELIO RAMOS, THEY NUMBERED APPROXIMATELY 678 INDIVIDUALS. THEY THRIVE THRU HUNTING, FARMING, PICKING SHRUBS (BANANA BLOSSOMS AND FLOWERING ORCHIDS) AND CHARCOAL MAKING FOR THEIR LIVELIHOOD.

- SOLAR LAMP AND LIGHTS INSTALLATION -
148 SOLAR LIGHTS FOR HOUSES, AND 19 SOLAR STREET LIGHTS WERE INSTALLED IN THE WHOLE VILLAGE.



- MAPPING, ID, HOUSE NUMBER AND CENSUS -
THE WHOLE VILLAGE WAS SUBJECTED TO A STRICT CENSUS, GPI CAPAS DIVIDED THE VILLAGE IN 5 SECTORS (A,B,C,D,AND E) AND THE RESIDENTS WERE GIVEN OFFICIAL ADDRESSES AND IDENTIFICATION CARDS, PLUS A HOUSE NUMBER FOR PROPER MONITORING.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ETAS ARE KNOWN TO BE “NOMADIC” (THEY TEND TO TRANSFER FROM ONE PLACE TO ANOTHER SPECIALLY TO PLACES WHERE THERE IS ABUNDANT FOOD.)



- HEALTH -
INITIAL DEWORMING WAS STARTED, MORE VACCINATIONS WILL FOLLOW UPON CONFIRMATION OF THE CHILDREN’S LIST TO FELLOW NGO’S WORKING IN THE AREA (IBS AND PROJECT MARGARITA. FEEDING PROGRAM WAS INITIATED AND CHILDREN BENEFITED FROM THE PROGRAM AS WELL AS THEIR PARENTS.



- EDUCATION -

CHILD SPONSORSHIP PROGRAM RECENTLY APPROVED 111 CHILDREN FOR THIS VILLAGE. SUPPORT BY MEANS OF SCHOOL SUPPLIES, UNIFORMS, OTHER SCHOOL MISCELLANEOUS EXPENSES, VISITATIONS AND FOOD BASKETS, PLUS MONITORING ON THEIR SCHOOL ACTIVITIES.

- INFRASTRUCTURE -

AN ADDITIONAL 3 CLASSROOM FOR STUDENTS , A LIBRARY, TEACHER'S DORMITORY AND LOUNGE, CLINIC, AND OFFICE FOR GPI CAPAS HAVE BEEN COMPLETED. A BASKETBALL COURT AND KID'S PLAYGROUND WAS ALSO ADDED



FOR THE STUDENTS PHYSICAL EDUCATION PROGRAM,

[Tarukan Village]

TARUKAN IS SITUATED AT THE SOUTHERN PART OF AETA MAG-ANTSI ANCESTRAL DOMAIN CLAIM LANDS. THE SITIO IS HEADED BY TRIBAL CHIEF JERRY C. DIAZ , THERE ARE APPROXIMATELY 115 FAMILIES AND 546 INDIVIDUALS.

[Bulacan Village]

BULACAN VILLAGE IS LOCATED AT THE NORTHWESTERN SIDE OF THE CROW VALLEY RANGE AND MILITARY RESERVATION. IT IS APPROXIMATELY 2 KM AWAY FROM BARANGAY STA. JULIANA, BRGY CAPTAIN GALANG HEADS THE SITIO OF

40 FAMILIES AND APPROXIMATELY 150 INDIVIDUALS. THE TRIBE IS COMPOSED OF 90% PURE AETA AND 10% ABERLEN (NON PURE AETA) POPULATION.

[Pilyen Village]

LOCATED APPROXIMATELY 5 KM AWAY FROM BULAKAN VILLAGE, PILYEN IS NORTHEAST OF STA. JULIANA AND IS SITUATED AT THE AETA/SAMBAL ABERLEN ANCESTRAL LAND CLAIM. THE TRIBE IS HEADED BY ITS CHIEF VICTOR CASTILLO. PILYEN RESIDENTS NUMBERED TO 91 FAMILIES WITH APPROXIMATELY 172 INDIVIDUALS. THE NATIVES ENJOY THE GOOD BLESSINGS OF THE RIVER, HAVING FOUR WATERWAYS THAT CONVERGE NEAR THEIR SITIO... HENCE CHILDREN AND THE RESIDENTS ARE CLEAN AND PROPER HYGIENE IS OBSERVE.

[Pisapungan Village]

PISAPUNGAN IS LOCATED NEXT TO PILYEN VILLAGE, AT APPROXIMATELY 2KM AWAY, A LONG TREK OF 3 RIVERS BEFORE YOU REACH THE SMALL SITIO WHICH COVERS NATIVE INHABITANTS NUMBERING TO 50 OR MORE FAMILIES.

[Kalapi Village]

ABOUT 150 FAMILIES LIVE WITHIN THESE LANDS, WHICH LIE ADJACENT TO THE MAIN ZONE. EXPANDING THEIR TRADITIONAL HUNTING AND GATHERING ECONOMY, THE VILLAGERS OF KALAPI COLLECT WILD BANANA SHOOTS AND SELL FRUIT, VEGETABLES AND SOUVENIRS OUTSIDE THE DUTY-FREE BUILDING OF CSEZ. THE WHOLE OF KALAPI VILLAGE FALLS WITHIN THE 2,000 HECTARE, REFORESTATION PROGRAM OF THE CDC IN THE SUB-ZONE. SINCE THE VILLAGE IS NOT A DECLARED RESETTLEMENT SITE, THE AETAS ARE ALLOWED TO STAY ONLY BECAUSE THEY HAVE AGREED TO ACT AS STEWARDS FOR THE PLANTED TREES IN EXCHANGE FOR AN 800 PESOS (US\$13) MONTHLY WAGE, PLUS SMALL GARDENS WHERE THEY PLANT THEIR CROPS.